

‘정신보건시범사업’ 효과...광주 자살률 전국 최하위

통계청 ‘작년 사망원인통계’ 분석
10만명 당 22.6명으로 크게 줄어
24시간 전담요원 배치 출동 상담
소방관·경찰관 응급대응체계 주효

광주지역의 자살률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의 정신보건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자살예방센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지역 내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2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인구 10만명 당 자살 사망자수(자살률)는 2013년 28.5명으로 전년에 비해 0.4명이 증가한 반면, 광주지역은 22.6명으로 전년(25.4명)보다 2.8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자살률도 가장 낮았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로 38.5명이나 됐다.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수로, 단위도 백분율(%)이 아닌 명으로 표기한다. 광주시의 자살률은 지난 2012년만 하더라도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로 중하위권을 유지했다. 광주지역의 자살률이 1년만에 급격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정신보건시범사업의 효과 덕분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정부의 정신보건시범사업에 지원에 따라 자살예방센터(1577-0119)를 지역체

계로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자살위기 상담과 현장출동을 위한 야간 전담요원을 배치·운영 중이다. 특히 소방(119)과 경찰(112) 등으로 연결되는 3자 통화 시스템을 도입, 현장 동시출동 등 응급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만 2599건의 자살상담이 이뤄졌으며, 상담 도중 현장에서 출동해 응급 관리한 인원만도 132명에 이른다. 이 중 야간 상담건수는 자살예방센터 설립 전인 2012년 하루 평균 0.3건에서 지난해에는 6건으로 20배나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또 지난해 자살 위기를 조기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결해주는 ‘생명사랑 지킴이’ 3447명을 육성했으며, 자살위험상황 시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자살예방전문가를 150명이나 양성하는 등 자살예방 인프라 형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는 특히 학생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기관과 업

무협약을 맺고 지난해에만 자살위기 학생 92명을 집중 관리해 자살을 예방했으며, 자살발생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 지역 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최근 구축한 광주 자살예방정보시스템(GSPIS)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체계적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항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스스로 생명을 끊은 일이 없도록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민선 6기 광주시정의 최종 목표”라면서 “앞으로도 자살예방사업은 물론 사회복지 시스템의 누수가 없도록 더욱 촘촘하고, 꼼꼼하게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광주시 ‘최우수상’ 받아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

광주시가 최근 안전행정부 주관한 ‘2014년 전국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전국 72개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중 1차 예선과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감사관실 임대진(세무6급) 주무관이 발표한 광주시의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입증대 사례’는 올해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세입분야 감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세입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8억9천500만원의 세입을 추징토록 했다. 특히 기존에 구축된 지방세 등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누락된 세외수입을 발굴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굴한 사례를 보면, 광주시 북구의 A법인이 지난 2011년 3월 창업중소기업으로 농지보전부담금 7000만원을 전액 면제받았지만 면제받은 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났다. 또 서구 B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개발부담금 400만원을 면제받은 후 창업용 제조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용 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총 16개 법인이 5억2000여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토지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 울 3938건 1억7700만원 절감

등기 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처리 기간이 짧은 탓에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시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대한 등기촉탁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시민들이 8월말까지 3938건의 서비스를 이용해 등기비용 1억77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모든 토지의 표시변경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처리하지 않고 지적행정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한 등기촉탁으로 대행 처리하고 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 정리시 부담해야 할 건당 4만5000원의 등기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등기촉탁 시스템 도입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처리 기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일로 대폭 단축된다. 송희오 시 토지정보과장은 “등기촉탁 무료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경로당 찾아가는 ‘이동 건강타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 건강타운’이 최근 서구 동천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지침과 물리치료, 건강체코, 노래교실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동 건강타운’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월 2차례씩 광주지역 경로당을 돌며 다양한 서비스를 선사하고 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제공>

세계김치문화축제 어린이·청소년 체험 3000여명 참가 신청

올해 김치축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해 우리의 김치문화를 배우는 시민축제로 치러진다.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중 어린이와 청소년이 김치문화를 체험하는 ‘어린이·청소년 김치문화탐험’에 3000명이 참가신청을 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광주시는 올해 새 프로그램 중 하나인 ‘어린이·청소년 김치문화탐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당초 목표인 3000명을 마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아원생, 유치원생, 초·중·고학생, 대학생 등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치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김치담그기 체험, 김치아트 체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21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꾸며진다. 오는 10월4일부터 8일까지 광주 중외공원 일원에서 ‘유네스코가 품은 김치(Kimchi Chosen by UNESCO)’를 주제로 김치오감 파빌리온, 김치마스코 파빌리온, 문화로 버무린 김치, M.I.G(Made in Gwangju) 마케팅등 김치를 문화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지난 1년간 함께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체험하며 즐기는 행사들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울 2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11월 11일까지 신청자 접수 지원액은 학자금을 대출 받은 학생이 부담하는 1년분 이자 2.9% 전액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광주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지역 대학생(대학원생 제외)이다. 시는 이번 학기부터 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자에서 든든학자금대출자까지 확

대하고, 이자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소득분위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대한 지원 자격 검토를 마친 후 해당 학생들에게 선정 결과를 휴대용 문자(SMS)로 통보하고, 오는 12월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지역 대학생에게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관련 문의사항은 광주시 120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 할인 카드란?

일정 금액을 카드에 충전 후, 골프장 내장시, 프론트에 카드를 제시하면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서 할인율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카드에서 차감 됩니다.

- 선불 카드 할인표 -

충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40%	기명1인 50%	무기명(팀)전원 40%
주중/주말			

공통 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 중	60,000
	주말(공휴일)	90,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3만원/주말4만5천원 (카트로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3